

KIA 타이거즈 2013 신인 지명 좌완 손동욱·포수 이흥구

4년 동고동락 “눈빛만 봐도 통해요”

손동욱 - 150km 육박, 묵직한 직구에 좌타자에 강해
이흥구 - 대학야구 홈런왕 “공격형 포수 되고 싶다”

KIA 타이거즈는 2013 신인 드래프트에서 단국대 좌완 손동욱과 역시 단국대 포수 이흥구를 1·2라운드에서 선택했다.
KIA는 4년 동안 한술밥을 먹은 ‘단국대 배터리’를 우선 선택하면서 오랜 고민이자 숙제인 좌완과 포수 포지션을 동시에 보강했다. 경험과 능력을 갖춘 대졸 선수에 대한 선동열 감독과 구단의 기대만큼이나 두 선수도 2013시즌에 대한 기대가 크다.
가장 먼저 KIA의 선택을 받은 손동욱은 “감사하다”는 말을 연발했다. 이흥구는 “좋아 죽을 뻔했다”는 말로 기쁨을 표현했다. 그만큼 프로는 아마 선수들이 꿈꾸는 꿈의 무대이자 목표다.
손동욱은 “KIA에서 관심 있다는 얘기를 해서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1순위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름이 나왔을 때 당황했다. 행복하다”고 밝혔다.
두 선수의 기쁨은 ‘함께’이기에 더 컸다. 손동욱과 이흥구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4년간 같은 팀에서 땀과 눈물을 흘렸던 절친이

다. 여기에 그라운드에서 가장 의지하고 믿어야 하는 투수와 포수 사이이다.
손동욱에게는 특히 고마운 친구다.
손동욱은 “원래 야구를 못했다. 대학와서 정말 열심히 해서 이 정도까지 왔다. 특히 흥구가 있어서 이 정도까지 큰 것 같다. 편하게 해주고 도루도 많이 잡아주고 항상 고마워하고 있다”고 든든한 친구에게 각별한 마음을 보였다.
이흥구는 “기분이 안 좋고 그러면 서로 풀어주기도 하고 동욱이가 많이 고마워하는 것 같다. 같이 4년을 했는데 또 같이 야구를 할 수 있어서 마음이 좋다”고 말했다.
좌완 손동욱은 최고 148km에 이르는 직구를 던지는 좌완 파이어볼러다. 볼모델로 삼고 있는 선수도 메이저리그의 좌완 강속구 투수 채프먼이다. 수준급의 포크볼과 함께 최근에는 체인지업의 위력까지 더해졌다. 하지만 가장 큰 장점은 자신감이다.
이흥구도 “동욱이의 가장 큰 장점은 자신감이다. 자기볼에 대한 믿음이 있다. 그게 참



KIA 타이거즈 2013 신인 포수 이흥구(왼쪽)와 좌완투수 손동욱.

좋다. 주눅들지 않은 피칭을 한다”고 평가할 정도다.
손동욱은 “직구가 묵직하고 빠르다. 좌타자가 나오면 특히 자신감이 있다. 우완이기는 하지만 윤석민 선배를 좋아한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공을 던지는 채프먼을 닮고 싶다. 동영상은 다 챙겨본다. 더 빠른 공을 던지고 싶다. 팀에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이흥구는 리틀 조인성을 꿈꾸고 있다. 강한 어깨와 힘이 장점이다. 올 시즌 대학 야구에서 타점왕과 홈런왕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흥구는 “볼모델이 조인성 선배다. 어깨가 강하고 비슷한 유형인 것 같다. 나도 조인성 선배처럼 공격형 포수가 되고 싶다. 꾸준히 열심히 하는 선수로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각오를 언급했다.

“박종우 문제 더 신중했어야”

홍명보 올림픽 축구 감독, 행정적 처우에 실망감



“이젠 떠나야 할 때”

홍명보 올림픽축구대표팀 감독이 22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런던올림픽 결산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명보(43) 런던올림픽 축구 대표팀 감독이 미드필더 박종우(부산)에 대한 행정적 처우에 실망감을 표했다.
홍 감독은 22일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열린 올림픽 결산 기자회견에서 한일전 ‘독도 세리머니’로 동메달을 아직 받지 못한 박종우의 문제에 대해 “행정적인 부분에서 더 신중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박종우가 시상대에 올라가지 못한 점은 아주 안타깝다. 그는 어느 선수보다도 우리 팀에 가장 많은 공헌과 노력을 한 선수로 충분히 자격 있는 동메달리스트다”라고 운을 폈다. 홍 감독은 또 “런던에서 귀국했을 때 만찬 등 환영행사에 박종우가 참석할 수 없다는 대한체육회의 결정을 전해 듣고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며 “그런 행정적 문제는 좀 더 신중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종우가 불참한다면) 팀이 처우와 끝을 함께 하는 데 있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박종우에게 따로 전화해 환영 만찬에 꼭 참석하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감독으로서 마지막까지 그 선수와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컸다. 그게 내가 감독으로서 마지막으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결정했다”고 뒷얘기를 전했다.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지난 3년6개월간 목표를 갖고 달려왔고 끝이 났다. 갖고 있던 에너지와 경험, 지식이 소진된 상태”라며 “구체적 계획은 없지만 당분간 자연인으로 돌아가 내 생활을 가지며 재충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장학재단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 등 내 손이 필요한 일은 계속하겠다. 개인적으로는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논문이 남았는데 쉬는 기간에 잘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속 타는 선동열 “이제 비 안 반가워”

KIA 덕아웃 말말말

▲이제는 비가 안 반가워 = 선동열 감독, 경기 전 비가 내리자, 시즌 초반에는 우천 취소가 반가웠는데 지금은 어차피 부상선수들도 많고 경기가 많이 밀려서 비가 달갑지 않다면서, KIA는 올 시즌 17경기가 우천취소되면서 8개팀 중 가장 적은 98경기를 소화했다. 지난 14일 LG와의 원정경기에서는 5-2로 앞선 4회말 폭우가 내리면서 노게임이 선언되기도 했다.
▲2군 다녀오면 잘 던져요 = 부진으로 2군에 다녀온 투수 박경태, 전날 피칭이 좋았다는 얘기를 듣자 절치부심 준비했다며, 박경태는 복귀 후 첫 등판이었던 21일 LG를 상대로 3이닝 1피안타 2탈삼진 무실점의 호투를 했다.

▲하품을 해서요 = 마무리 최향남, 눈이 충혈돼서 피곤해 보인다 하고 하자.
▲눈도 못 마주치죠 = 외야수 이준호, 신인 드래프트에서 지명을 받은 외야수 윤민섭이 자신의 고려대 3년 후배라며.
▲빨리왔자 나만큼이었지 = 외야수 나지완이 SK 지명을 받은 김선빈의 화순고 후배 최민재가 많이 빠르다는 얘기를 듣고, 나지완은 올 시즌 5개의 도루를 기록하며 이용규(33개), 김선빈(22개), 안치홍(15개), 김원섭(7개)에 이어 팀내 공동 5위다.
▲소사 원장님이에요 = 모하칸 스타일로 변신한 불펜 보조 김양근, 외국인 투수 소사가 머리를 밀어줬다면서, 앤서니의 머리도 소사의 작품이다.

광주일보 창사60주년 기념 엄홍길 대장과 함께하는 밀레 ‘한국명산 16좌 원정대’ 모집



▶참가신청: 광주/전라지역 밀레 매장서 접수 (자세한 사항은 밀레 매장 혹은 www.millet.co.kr)
▶참가특전: 참여하신 모든분께 밀레 기념품 증정
내년째 신행 8월 24일(금) / 민주지산
*일정 및 산행루트는 기상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주)밀레 마케팅본부 (02-3153-3143, 4)
주최 | MILLET | 주관 | Mtour
후원 | 광주일보사

K리그 ‘강등권 탈출’ 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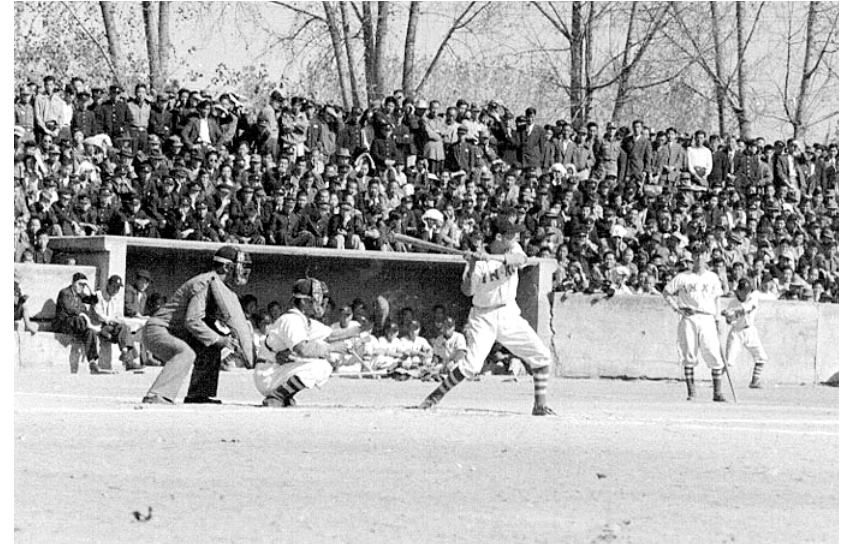
스플릿 시스템 적용
상·하위 8개 팀끼리
물러설 수 없는 승부

K리그가 ‘상위권 선점’과 ‘강등권 탈출’을 위한 경쟁으로 뜨거워진다.
정규리그 종료는 눈앞에 둔 K리그가 다음달 15일부터 스플릿 시스템으로 승부를 벌인다. 강등권 도입에 따라 16개 팀이 정규리그 30라운드 성적을 따라 8개팀씩 2개 그룹으로 나눠 대결을 갖는 것이다.
우승컵을 향한 상위 8팀끼리의 대결과 1부리그 잔류를 위한 하위 8개 팀의 물러설 수 없는 승부는 오는 12월까지 계속된다.
3월2일 개막한 2012 K리그는 오는 26일 30라운드를 경기를 끝으로 3주간 휴식에 들어간다. 진검승부는 9월15일 시작된다. 30라운드 성적을 기준으로 1~8위 팀들을 ‘그룹A’, 9~16위 팀들을 ‘그룹B’로 나눠 12월2일 44라운드까지 승부를 계속한다.
‘스플릿 시스템’이 시작돼도 앞서 쌓

은 승점은 그대로 유지된다. 최종 순위는 그룹 내에서 가려진다. 그룹 B에 속한 팀의 승점이 44라운드 종료 후 그룹 A팀 보다 높더라도 순위는 9~16위 내에서 결정된다.
‘그룹A’ 팀들의 목표는 K리그 우승이다. 역대 최고인 5억원의 우승상금이 걸려있다. 또 ‘그룹 A’의 1~3위에게는 2013년도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이 주어진다.
‘그룹B’ 팀들의 목표는 1부리그 잔류다. 내년 시즌부터는 K리그가 14개 팀으로 운영된다. 최하위 2개팀은 2부리그에서 새 시즌을 맞이해야 한다.
승점과 함께 정규리그에서 이뤄진 기록도 ‘스플릿 시스템’에서 그대로 이어진다.
경고 누적에 대한 출장정지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경고가 3차례 누적되면 1경기 출장정지다.
최다득점, 최다도움 등 개인기록도 정규리그 성적을 합산해 가려진다. 시즌 종료 후 최다득점선수에게는 상패와 상금 500만원, 최다도움선수에게는 상패와 상금 300만원이 주어진다.

기록물로 보는 한국야구

국가기록원은 23일 야구의 날을 앞두고 1950~1982년 한국야구 관련 기록물 43건을 나라기록포털(http://contents.archives.go.kr)을 통해 공개했다. 기록물은 동영상 18건, 사진 25건으로, 한국 야구팀의 1963년 일본팀 격파, 1977년 슈퍼월드컵 야구대회 우승 등의 장면을 생생히 볼 수 있다. 연합뉴스



1953년 동대문야구장서 열린 전국체육대회 야구경기.



1956년 여·야 친선 야구대회에서 악수하는 응원단장 김두한(오른쪽)·김철안(왼쪽).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야구대회(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내한) 참관 시구하는 모습.



1956년 열린 전국시·도대학 야구대회 점수판.



1977년 제4회 슈퍼월드컵에서 우승한 야구선수단 귀국 환영기념촬영 모습.